

“선거구 획정안 처리 서둘러야”

유권자·예비후보를 총선 제대로 치를지 우려 목소리

총선 D-43 관련기사 3·4·5면

20대 총선을 불과 45일 앞두고 가까스로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회를 통과했지만, 여야의 테러방지법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커 국회 본회의 처리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유권자들과 정치신인 등 예비후보자들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이번 총선을 무사히 치를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제19대 국회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임기 말까지 정쟁만 일삼으며 선거구 획정을 늦추고, 현역의원에만 유리한 ‘게리맨더링’을 하면서 국민 무시, 유권자 무시, 정치신인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여야는 29일 테러방지법으로 인한 정국 경색을 서로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대치정국을 이어가면서 이날 선거구 획정안 처리 등을 위해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는 본회의 개최 대신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팽팽한 힘겨루기만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선거법을 처리하기 위해 더민주 등 야당이 조건 없이 필리버스터를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더민주는 선거법을 처리한 뒤 필리버스터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인 데다 여야의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다”면서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더민주가 스스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해야 한다. 선거구 획정의 공은 더민주에 넘어갔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총에서 “필리버스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여당과 합의한 뒤라면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가톨릭전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이처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 처리가 여야 대치로 지연될 경우 국회 안전행정위에서 통과한 선거구 획정안도 사실상 ‘무용지물’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선거구가 변경된 일부 지역의 정치신인 등 예비후보자들은 선거일이 4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알리기에 시간이 부족해 사실상 현역 의원에만 유리하다고 불만을 하고 있다.

특히 광주와 전남의 경우 이번 선거구 획정안에 따라 일부 선거구가 상당 부분 조정되거나 통폐합됨에 따라 지역 유권자들은 자칫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들도 자세히 모른 상황에서 ‘깜깜이 투표’를 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광주 남구의 경우 동구와 통합, 기존 동구 일원에 남구 양림동, 방림 1·2동, 사직동, 백운1·2동 등 6개동이 새로 편입되고, 북구의 경우도 북구를 선거구였던 오치 1·2동과 임동을 북구갑에 편입하면서 이 지역 유권자들은 사실상 새로운 예비후보들과 직면해야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4·13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은 벌써부터 게리맨더링(의의적 선거구 획정) 비판을 받고 있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조짐이다.

일부 선거구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지역주민은 물론 출마 예비후보자들까지 ‘줄속 획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데다 초대형 선거구 탄생에 따른 ‘지역 대표성 훼손’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장기간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인해 선거 후 줄소송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마지노선은 오는 3월24일까지다. 하지만, 재외선거 명부 작성기간이 3월4일까지이고, 재외선거 명부 열람기간이 3월5일부터 9일까지여서 재외선거명부 열람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 최현일기자 cki@kwangju.co.kr

4·13 총선 표발 점검-순천 ▶5면

한빛원전 1호기 안전 문제없나 ▶6면

디캐프리오 아카데미 4전5기 ▶19면



대학입학...소원풍선 날리기 지난 29일 나주 동신대 체육관에서 열린 '201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한 신입생들이 자신들의 꿈이 담긴 소원 풍선을 하늘 높이 날려보내고 있다. 이날 입학식엔 학부(1670명)·석사과정(206명)·박사과정(65명) 등 모두 1941명이 입학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국민의당, 6단계 관문 통과해야 공천

더민주와 쇄신 경쟁에 ‘간간’

현역 많은 광주 컷오프 높여

국민의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9일 현역 의원들에 대해 6단계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최종적으로 당의 총선 후보로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고강도 공천안’을 마련했다.

아권 주도권 경쟁 상대인 더불어민주당이 1차 컷오프와 2차 정밀심사 등을 통해 현역 의원을 현미경 검증하듯 하며 개혁공천 드라이브에 나서자 더 간간한 공천심사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생명을 걸고 더민주를 탈당

한 인사들을 냉정하게 내쳐서는 안된다는 지적과 함께 쇄신안의 주요 타깃이 될 호남 지역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어 공천감동이 폭발할 일촉즉발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공관위는 지난 주말 회의를 거쳐 ▲현역 의원 컷오프 ▲도덕성·혁신성 평가 ▲의정활동·본선경쟁력 평가 ▲전략공천 여부 결정 ▲당내 경선 등 5단계로 이뤄진 공천 시행세칙을 마련했다. 여기에 현재 진행중인 후보 자격심사까지 포함하면 당 소속 현역 의원들은 6단계 관문을 통과해야 최종적으로 공천을 받게 되는 것이다.

현역 의원 컷오프 비율은 최소 20%로 하되 권역별로 기준을 달리하기로 했다. 특

히 현역 의원들이 많은 광주 지역은 컷오프 비율을 더욱 높이기로 가닥을 잡았다.

국민의당은 현재 소속 의원이 17명이고, 이 가운데 신학용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만큼 최소한 3명은 공천에서 탈락시키겠다는 것이다.

도덕성·혁신성 평가의 경우 자격심사의 제2라운드 성격을 띠게 된다. 각종 구설이나 논란에도 현저한 법적 문제가 없을 경우 일단 자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지만 이 단계에서 재차 걸러지게 되는 것이다.

의정활동·본선경쟁력 평가 단계에서는 후보 개인의 역량과 함께 유권자 선호도 등을 따질 계획이다. 또한 공관위는 이들 조건

에 부합하는 후보라도 전략공천의 가능성을 열어두기로 했다. 현역 의원은 이 모든 관문을 통과할 경우 비로소 당내 경선을 치를 수 있게 된다. 공관위 한 관계자는 “국민의당에 현역 의원이 17명에 불과한데 20% ‘물갈이’로 혁신했다고 볼 수 있나”라면서 “20%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고 그 정도로 끝날 일이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반발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한 호남 현역 의원은 “우리 당은 다른 당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혁신 요구와 현실적 조건을 상식과 순리에 따라 조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자동차·철강 등 부진...광주·전남 수출 큰 폭 감소

중국 성장 둔화 등 영향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정밀화학 등 광주·전남의 주요 공산품은 물론 전복, 미역 등 농수산물에 이르기까지 지역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저유가 지속 및 상품 공급 과잉, 중국 성장 둔화, 엔화 약세 지속 등이 그 원인이다. 전남도는 올해 중소기업 수출기반 구축을 통한 경쟁력 및 해외마케팅 강화에 나설 방침이지만, 외부 요인이 여전히 부정적이라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9일 광주·전남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광주 수출액은 전년 같은 기간 보다 19.6% 감소했다. 금속가공(23.2%) 수출이 늘었지만 주력 업종인 자동차(-13.9%), 반도체(-27.9%), 냉장고(-26.9%), 기계장비(-79.9%) 등이 크게 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에서도 지난해 11월 기준 전남의 수출액은 281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22.0%가 감소했다. 2015년 목표로 잡은 400억 달러의 70.3%에 불과한 성적표다. 공산품은 279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2.1%, 농수산품은 2억3000만 달러로 9.4% 각각 줄었다. 석유제품(-35.0%)이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으며, 철강(-21.3%), 석유화학(-18.5%), 정밀화학(-6.7%)의 순이었다. 미역(-31.8%), 전복(-12.9%)도 부진했으며, 그나마 넉치(67.8%), 버섯류(10.5%) 등의 수출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마이너스를 상쇄했다.

올해 수출 전망도 어둡다. 농수산품은 한

중 FTA를 통한 중국 수출 증대 그리고 철강은 수출 부진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석유화학 분야는 중동·일본 등의 수요 감소, 조선도 수출 감소 등이 예상되고 있다.

올해 수출 증대를 위해 전남도는 수출지원협의회를 신설·운영하는 한편 수출 초보기업 현장 밀착 지원, 종합 지원체계 구축, 글로벌 경기에 대응한 자금 지원, 농수산물 해외 마케팅 강화 등에 나설 방침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오늘 3·1절 전국마라톤대회

오전 8시 30분 문화전당 출발...교통통제 양해 바랍니다

HERA

깊이 있게 스며들어 찬란한 빛이 되다
헤라 오일 세럼 매직 포뮬라

아름다움에 깊이를 더하세요
헤라만의 셀-바이오 모이스트™ 기술이 만들어 낸
출출한 미세오일입자가 걸피부는 신뜻하게, 속피부는 촉촉하게-
단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궁극의 보습을 선사합니다
느껴보세요, 오일과 세럼의 마법 같은 만남

www.hera.co.kr